

국제유가, 2010년 100달러 간다!

한파 장기화에 달러 약세로 천정부지 ... 1/분기에 90달러 돌파 예상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국제유가가 1/4분기에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고 연말에는 100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Bloomberg 통신에 따르면, 2007년의 유가 급등세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제프 루빈 전 CIBC 월드마켓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10년 4/4분기까지 세자릿수의 유가를 보게 될 것”이라며 “3월 말까지는 90달러선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와 중동지역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비 재래식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서유럽과 미국 수요는 정점에 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석유의 소비증가세는 중국과 인디아 등 신흥시장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루빈은 2009년 여름에 출판한 저서에서도 2012년까지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루빈은 “2011년이나 2012년이 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147달러, 160달러에 달해 세계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WSJ(월스트리트저널)은 그동안 석유, 구리 같은 상품·원자재 가격과 달러가 반대로 움직여왔으나 2009년 11월 이후 역 상관관계가 깨졌다고 보도했다.

세계적으로 경기회복 조짐이 확산되면서 상품·원자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가격이 상승했고 달러 가치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지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컴버랜드 어드바이저스의 빌 워더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몇 개월간 달러가 오르면서 원자재 가격이 동반 상승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08>